

빼앗긴 땅에도 '문화 뿌리'는 살아있다



바이칼 알혼섬의 사면 바위 입구에는 브랏트인이 신성시 하는 스테 13개가 세워져 있고, 사면들은 이 곳에서 기도를 한다.

브랏트=글 오광록·사진 최현배 기자

정처없이 떠도는 것은 어쩌면 인류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먹을 것과 넓은 땅을 찾아 유목했던 과거처럼 디지털 시대에도 '노마드'(Nomad)는 유효하다.

끊임없이 떠도는 삶은 고단한 역사를 남겼다. 브랏트인은 한 때 몽골의 지배를 받았고, 이제는 러시아의 변방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마저도 자신의 정신적 고향인 바이칼이 가까운 러시아 이르쿠츠크 일대와 서쪽의 브랏트공화국으로 갈라져 살고 있다.

우리가 브랏트의 문화 원형에 주목하는 것은 한민족의 문화와 비슷한 형태가 많기 때문이다.

비단, 한민족의 시원을 바이칼 일대로 보거나 브랏트인과 한민족의 유전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바이칼의 문화 원형은 '아시아 문화 본질'에 좀 더 다가가는 중요한 통로다.

또 놓칠 수 없는 것은 바이칼 일대의 문화에 유럽의 문화가 혼용돼 있다는 점이다.

19세기 이전부터 시작됐던 러시아의 이주정책에 따라 바이칼 일대의 고대 종족과 유럽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다는 점도 중요하다.

유럽 이주민은 대부분 러시아 정교회 등 가톨릭을 믿고, 이는 바이칼 일대의 사머니즘과 어울려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냈다.

브랏트 마을마다 상징 동물이 있는 이르쿠츠크도 담비를 입에 물고 있는 눈표범을 도시의 상징으로 삼고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76>

9부 몽골·브랏트 편

10 문화 원형 되찾기

몽골·소비에트 지배받던 브랏트인

문화 원형·신분 숨기며 변방 떠돌아

조상 이야기 책으로 엮고 유물 전시

사면 정체성 찾기 활발...부활 예고

있다. 과거 유럽 이주민이 토착 세력과 전투를 하거나 경쟁하면서 더욱 많은 민족 이동이 이뤄진 점도 주목해야 한다.

민족의 이동은 문화를 더욱 넓은 지역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소비에트 시절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이주해 온 유

럽의 다양한 민족은 시베리아 일대의 고대 종족 문화와 자연스럽게 만났다.

동북아시아의 문화 원류를 이해할 때, 유럽의 문화 유입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동북아시아의 슬한 민족이 어떻게 자신의 문화를 지켜냈고, 또 유럽의 문화와 결들여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낸 과정을 읽을 수 있다.

여전히 바이칼 일대에서는 카자흐스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이주민들이 마을을 이뤄 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최근 브랏트인들이 자신의 문화를 되찾으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에트 시절 사면의 대규모 학살을 경험하는 등 브랏트인은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또 오랜 기간 몽골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

문화도 마찬가지였다. 자신들의 문화를 포기하고 감춘 채 소비에트의 방식을 따라야 했다.

이 때문에 브랏트 문화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생겨나기도 했다. 현재 러시아 이르쿠츠크와 브랏트자치공화국으로 나뉘어 살고 있는 브랏트인은 자신들의 문화 찾기에 나서고 있다.

박물관 등지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는 작업이 활발하다. 다양한 동물 이야기를 묶은 책이 나오고 조상의 삶의 모습이 묻어난 유물을 묶어 전시하는 공간도 생겨났다.

사면의 부활도 예고하고 있다. 소비에트의 탄압으로 신분을 숨긴 채 몽골 등지로 숨어들었던 사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있다. 미신으로 치부돼 탄압되던 시절에는 출입이 힘들었던 '사면의 섬' 바이칼 알혼섬에도 매일 기도를 하는 사면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문화의 힘은 역시 강했다. 브랏트인은 몽골과 소비에트의 지배에도 문화의 명맥만은 유지했다. 할아버지에게서 손자에게로 전해진 슬한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았고, 자연과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는 사면의 정신도 간직했다.

이르쿠츠크 브랏트 마을 입구에는 '민족과 문화에 상관없이 부랏트 민족에 대해 예의를 갖춰주세요'라는 팻말이 내걸렸다. 힘이 없어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더라도 문화만은 가둘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말이다.

브랏트의 문화 원류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증 된 것은 문화는 역지가 없다는 점이다. 총과 칼로써 뺏을 수 없는 게 문화이며 시간이 흘러도 유전처럼 후대에 남는 게 문화다.

/kroh@kwangju.co.kr

"한국-브랏트 민족 공통점 많아 문화 원형 공동 연구 필요하다"

류드밀라 미하일로브나 브랏트국립박물관 관장

"모든 물건에는 자신의 전설과 역사가 있어요. 가족을 나무라고 한다면, 뿌리는 지하세계 나무 위는 신의 세계를 뜻하죠. 또 출기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브랏트국립박물관 류드밀라 미하일로브나 관장은 자신의 민족이 믿는 사머니즘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과거의 미신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품들도 조상의 손때가 묻어 의미 있는 것이며, 그 안에는 자신들의 신념과 삶이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한국민족과 브랏트 민족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생각 새뿐만 아니라 문화의 다양한 면이 서로 닮았다고 그녀는 분석했다. 게세르신화와 단군신화, 선녀와 나무꾼의 신화 등 양 민족이 간직하고 있는 문화 원형의 유사성에 대해 주목했다.

또 러시아 이르쿠츠크에 살고 있는 브랏트인과 브랏트공화국에 거주하는 브랏트인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떨어져 살다 보니, 지역적으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르쿠츠크 사면은 카드로 점을 치거나 우유로 점을 치거나 말 췌를 뿌리거나 치료를 한다. 이 때문에 지금도 차를 마실 때 짙은 서 점을 보는 문화가 남아 있다. 반면, 브랏트공화국은 우유나 차를 뿌려서 점을 친다.

또 여전히 브랏트인은 남자인 모어서 제사를 지낸다. 봄에 풀이 많이 자라면 지내고 가을에 또 한 번 제사를 지낸다고 했다.

사면에 대해 그녀는 "무당이 부적을 써주고, 양은 가져간다. 사면이 방편을 준다"면서 "원색사면은 좋은 일만 기원하는데 검은사면 저주를 내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민족은 "오래전 철기를 잘 다루 중국과 무역을 통해 발전할 수 있었고, 한국과 비슷한 술을 내리는 토기를 이용해 술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과 브랏트의 문화 원형이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양국이 함께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브랏트인의 정신적 고향인 알혼섬에서 바라본 바이칼 호수의 모습.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시공후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